

가천대학교/국민대학교 대비 약술형 예상문제 (국어)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근대 이후 인간의 자유는 철학적 논의의 핵심 주제 중 하나였다. 자유는 인간 존재의 본질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간주되었으며, 개인의 자율성과 자아 실현의 기반이 되었다. 특히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자유를 단순히 외부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로 보지 않고, 오히려 존재의 조건 그 자체로 이해하였다. 대표적으로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로 ‘저주’받았다”고 말함으로써, 인간이 자유를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강조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은 본질이 규정된 채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와 선택을 통해 본질을 구성해 나간다. 따라서 인간은 스스로 행한 모든 선택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의 개념은 오히려 인간에게 무거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개인의 선택이 사회적 규범이나 타인의 기대와 충돌할 때, 자유로운 선택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자신의 선택이 초래한 결과 앞에서 불안을 느끼고, 선택 자체를 회피하려 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하이데거는 인간이 ‘불안’을 통해 자신의 실존을 자각하게 된다고 보았다. 익명성과 규범 속에 안주해 살아가는 ‘비본래적 실존’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존재의 혼란함과 자유의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유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만 실현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인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 지점에서 자유는 더 이상 절대적 권리로 간주되지 않으며, 책임과 규범이라는 윤리적 토대 위에서만 정당화된다. 롤스는 ‘정의론’을 통해 자유의 평등한 분배가 정의로운 사회의 조건임을 역설하였다. 그는 자유를 무한정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자유의 본질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보았다.

결국 자유는 고립된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실현되어야 할 가치이다.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 모두의 삶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윤리적 요청이기도 하다. 자유가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져오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스스로 감당하려는 실존적 태도가 필요하다. 자유는 권리가 아니라 과제이며, 삶의 방향을 끊임없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 속에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과 실존이 드러나는 것이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을, 본질이 규정된 채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라 ㉠을 구성하는 존재로 보았다. 사르트르는 인간이 자유로 ‘저주받았다’고 표현하며, 자유가 필연적으로 ㉡을 동반한다고 보았다. 하이데거는 인간이 ‘불안’을 통해 ㉢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 이는 자신의 실존을 자각하기 위한 과정이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 태도를 요구한다. 한편 롤스는 자유가 단지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 속에서 조정되어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01. ㉠~㉤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제시문에서 찾아 쓰시오.

가천대학교/국민대학교 대비 약술형 예상문제 (국어)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과학은 세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우리는 왜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지를 뉴턴의 중력 법칙으로 설명하고, 왜 유리창이 깨졌는지를 에너지 보존의 법칙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은 단지 ‘어떻게’가 아니라, ‘왜’의 문제를 다룬다. 그런데 이 ‘설명’이라는 행위 자체는 자명하지 않다. 과학적 설명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는 구조적 조건이 필요하다.

자연과학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설명의 형식은 ‘연역-법칙적 설명’이다. 이 모형에 따르면, 어떤 현상이 과학적으로 설명되려면 그 현상을 상위의 보편 법칙과 특정 조건에서의 초기 사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금속이 가열되면 팽창한다는 현상은, “모든 금속은 가열되면 팽창한다”는 일반 법칙과 “이 금속은 가열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연역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때 설명이 성립하려면, 설명항(법칙과 조건)은 검증 가능한 진술이어야 하며, 설명항에서 설명귀(설명되어야 하는 현상)를 논리적으로 추론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 모델은 복잡한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드러낸다. 첫째, 실제 과학에서는 설명귀를 먼저 관측하고, 그에 맞는 설명항을 사후적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새로운 천체의 움직임이 기존 법칙과 어긋날 때, 과학자는 오히려 법칙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도입하여 설명을 구성한다. 이는 설명이 엄밀한 ‘연역’이라기보다는, 귀납적 조정의 결과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연역-법칙적 설명이 논리적으로는 성립하더라도, 설명력이나 이해 가능성은 반드시 보장하지는 않는다. ‘나무가 번개에 의해 불탔다’는 사실이, 물리 법칙에 따라 설명 가능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번개라는 원인이 의미망 속에서 작동할 때이다. 즉 과학적 설명이란 단순히 논리적 구조로 환원될 수 없고, 그 설명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또한 핵심이다.

이에 따라 과학 철학자들은 설명을 인간의 인지 구조, 인과적 직관, 또는 서사적 구조와 결합하여 바라보기 시작했다. 인지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복잡한 현상을 설명할 때, 원인과 결과 간의 시간적·공간적 인접성을 중시하거나, 정황적 요소를 제거한 단순 모형을 선호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예컨대 우주배경복사의 존재는 빅뱅 이론의 강력한 지지 증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복잡한 관측 데이터를 단지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는 하나의 직관적 문장으로 이해한다. 설명은 단순한 진술의 집합이 아니라, 의미망 속에서 선택되고 조직되는 구조물인 것이다.

결국 과학적 설명은 하나의 고정된 정답이 아니라, 현상을 어떤 관점에서, 어떤 용도로, 어떤 수준에서 설명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구성적 산물이다. 어떤 설명은 법칙적 정합성을 우선시하고, 어떤 설명은 예측 가능성과 실용성을 강조한다. 또 어떤 설명은 인간의 직관과 언어, 개념적 구조에 기반할 수도 있다. 과학이 제시하는 ‘설명’이 진리를 향한 일방통행로가 아니라, 복수의 경로 중 선택된 하나의 길임을 인식할 때, 우리는 과학 지식의 본질과 한계를 함께 사유할 수 있게 된다.

가천대학교/국민대학교 대비 약술형 예상문제 (국어)

02. <보기>는 갑과 을의 대화이다. ㉠과 ㉡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제시문에서 찾아 각각 쓰시오.

<보기>

갑: “폭풍우로 유리가 깨졌다”는 것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지?

을: 설명 자체는 가능하지. 예를 들어 공기압의 변화, 바람의 운동량, 유리의 구조적 한계 같은 조건과, 충격량이 임계치를 넘었을 때 파손된다는 법칙을 결합해서 설명할 수 있어.

갑: 그런데도 설명이 충분하다고 느껴지진 않네. 뭔가 “그래서 왜?”라는 질문에 안 닿는 느낌이랄까.

을: 그건 네가 설명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에 가깝기 때문이야.

갑: 그럼 과학자들은 모두 그런 설명을 받아들여?

을: 꼭 그렇진 않아. 오히려 과학자들도 새로운 현상에 맞게 기존 법칙을 수정하거나 조건을 더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구성하거든.

갑: 그럼 설명이라는 게 고정된 틀이 아니라 ㉡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말이네.

을: 맞아. 같은 현상도 누가, 어떤 관점에서, 어떤 목적으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

※다음은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요즘 청소년들은 다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잖아. 버스를 타도, 길을 걸어도, 전부 고개 숙이고 휴대전화만 보는 걸. 이 정도면 스마트폰이 청소년들의 사고력이나 사회성 발달에 분명히 해롭다고 봐야 해.

을: 음, 너의 말을 듣고 보니 요즘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은 다 그렇다”는 식의 표현은 조금 일반화된 건 아닐까?

갑: 일반화라고?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 실제로 나도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몰래 보거나, 쉬는 시간에도 친구들과 대화보다 스마트폰을 우선시하는 걸 자주 보거든.

을: 너가 관찰한 사례들이 의미 없는 건 아니야. 다만, 특정 상황이나 일부 집단의 행동을 전체 청소년의 경향으로 확대하는 건 논리적 오류일 수 있어.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독서나 공부를 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친구들과 더 활발히 소통하는 청소년들도 있잖아. 스마트폰 사용 자체가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갑: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데 스마트폰이 지나치게 사용되는 건 사회적 문제 아닌가? 하루에 8시간 넘게 사용하는 청소년이 있다는 기사도 봤어.

가천대학교/국민대학교 대비 약술형 예상문제 (국어)

을: 맞아. 스마트폰 과의존은 실제로 문제일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논의해야 할 건, “청소년 전체가 그렇다”는 식의 단정보다는, 어떤 사용 맥락에서 문제가 발생하는가, 또는 과의존이 왜 생기는가 같은 구체적인 원인을 밝히는 거 아닐까?

갑: 음, 그러니까 내 말의 핵심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사회적 문제이며, 그 원인과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도로 정리하면 어떨까?

을: 좋아. 그렇게 하면 주장도 더 설득력을 얻고, 불필요한 일반화도 피할 수 있어. 게다가 그 주장은 대안이나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로도 연결될 수 있으니까.

갑은 요즘 청소년들이 대부분 스마트폰만 사용한다고 주장하며, 이것이 ㉠ 발달에 해롭다고 단정한다. 이에 을은, 특정 상황에서의 사례만으로 전체 집단의 경향을 말하는 것은 ㉡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후 갑은 기사 등을 근거로 과의존 문제를 강조하지만, 을은 문제의 핵심이 “청소년 모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문제적 사용이 이루어지는지의 ㉢을 파악하는 것이라 말한다. 결국 갑은 주장을 조정하여, 스마트폰 과의존은 ㉣ 문제이며,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을은 이에 동의하며, 그렇게 해야 ㉤도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인다.

03. ㉠~㉤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제시문에서 찾아 쓰시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매운 계절(季節)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北方)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高原)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데다 무릎을 끓어야 하나
한 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캔가 보다.

- 이육사, 『절정』

가천대학교/국민대학교 대비 약술형 예상문제 (국어)

04. <보기>는 작품 「절정」에서 화자의 인식이나 태도를 보여주는 표현을 다르게 서술한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시의 구절을 제시문에서 찾아 정확히 쓰시오.

화자는 자기 존재의 위기 속에서도 무릎 끓지 않고, 되려 그 극한을 마주 보며 정신적 긴장을 극대화한다.

05. 다음 글은 이육사의 「절정」에 대한 해설의 일부이다. 빈칸 ㉠, ㉡에 들어갈 적절한 구절을 제시문에서 찾아 쓰시오.

이 시에서 화자는 현실의 모진 고난을 '겨울'로 형상화하며 자신이 처한 시대적 비극을 직시하고 있다. 그는 ㉠ 라는 구절을 통해, 삶의 방향조차 분간할 수 없는 내면의 혼란과 좌절을 토로한다. 이어서, 극한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 라는 표현으로 고난을 초월한 새로운 인식을 드러낸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날도 실상 이랬더라우. 혼을 내주었더니, 아주머니더러 그런 소리를 하더란 그날 말이오.

그날이 마침 내가 쉬는 날이길래, 아주머니더러 할 이야기도 있고 해서 아침결에 좀 들렸더니, 아주머니는 남의 혼인집에 바느질을 해 주러 갔다고 없고, 아저씨 양반만 여전히 아랫목에 드러누워 있었소.

그런데 보니, 어디서 다 뒤져 냈는지 머리맡에다가 헌 언문 잡지를 수북이 쌓아 놓고는 그걸 뒤지고 있었지요. 나도 심심삼아 한 권 집어 들고 떠들어 보았는데, 뭐 읽을 맛이 나야지요.

대체 조선 사람들은 잡지 하나를 해도 어찌 그렇게 꼴이 말이 아닌지. 사진도 없고, 망가도 없고, 까탈스러운 한문 글자들로만 도배를 해 놓았으니, 그걸 누가 읽으란 말이오? 더구나 우리 같은 놈은 언문도 그런대로 뜯어보기는 해도, 읽는 건 여간 폐롭지가 않소. 그러니 어려운 언문에 까다로운 한문을 섞어서 쓴 글은 뜻을 몰라 못 읽지요. 언문으로만 쓴 건 소설 나부랭이인데, 그건 또 재미가 없소. 나는 조선 신문이나 잡지하고는 담 쌓고 산 지 오래라오.

잡지라면 『킹구』나 『쇼네구라부』 같은 게 최고지요. 참 좋아요. 한문 글자마다 가나를 달아 놨으니 어떤 대문을 펴들어도 술술 읽히고 뜻도 행하니 알 수 있다 이 말이오. 그리고 어떤 글을 읽어도 유익한 교훈이나 재미난 소설이 들어 있소. 소설이 아주 재미있소. 특히 기쿠지캉 소설, 그 얼마나 아기자기하고 달콤한지! 또 요시가와 에이지 소설은 시대물인데 어깻바람이 나요. 재미있지, 망가도 많지, 사진도 많지, 값도 싸지요. 십오 전이면 바로 그달 치를 사 볼 수 있고, 보고 나선 오 전이면 도로 팔 수 있소.

가천대학교/국민대학교 대비 약술형 예상문제 (국어)

잡지도 기왕 하려거든 그렇게나 해야지. 조선 사람들은 제엔장, 큰소리는 잘도 치면서도, 잡지 하나 반반한 거 못 만들어 낸다니깐!

그날도 글쎄, 조선 잡지가 그 모양이니 글은 볼 멋도 없고, 혹시 망가나 사진이라도 있을까 해서 책장을 후르륵 넘기는데, 마침 아저씨 이름이 있겠소! 하도 신통해서 슬쩍 펴들어 보았더니, 제목이 경제, 사회 어쩌구저쩌구……

그것만 봐도 별씨 그럴듯하잖소. 경제라면 아저씨가 대학교에서 배웠다니까 잘 알고, 사회는 사회주의를 했다 하니 또 잘 알 것이고. 그러니 경제하고 사회주의가 어떻게 관계되는 것이며, 어느 쪽이 옳다는 소리를 썼을 게 분명하지 않소?

보나 마나지요. 대학교까지 가서 경제를 배우고도 돈은 못 모으고, 사회주의만 하고 다니는 양반이니, 경제가 그르고 사회주의가 옳다고 우겨 댔을 거요.

그래도 아저씨가 썼다는 게 신기해서 좀 보아 볼까 하고 훑어보았는데, 웬걸! 글자는 어렵지 않아 대강 알겠는데, 무슨 뜻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지요. 속이 상해서 읽는 건 작파하고, 아저씨를 좀 따지고 몰아세울 생각으로 그 대목을 차악 펴 놨지요.

“아저씨?”

“왜 그러니?”

“여기 경제 어쩌구, 사회 어쩌구 썼는데, 그게 경제 하라는 거요, 사회주의 하라는 거요?”

“뭐?”

아저씨는 못 알아듣고 뚜렷뚜렷해요. 자기가 써 놓고도 오래돼 잊었거나, 아니면 내가 말을 너무 까다롭게 해서 섬뻑 대답이 안 나왔겠지. 그래 다시 조곤조곤 따졌소.

“아저씨…… 경제란 건 돈 모아서 부자 되라는 거 아니오? 사회주의는 그 부자 돈을 뺏어 쓰는 거고.”

“이 애가 지금!”

“아—니, 들어 보시오.”

“너 그런 경제학이나 사회주의 어디서 배웠니?”

“배우나마나, 경제는 돈 벌어 애껴 쓰고 나머지 모으는 거 아니오?”

“그건 보통 ‘경제한다’고 말하는 경제고, ‘경제학’이나 ‘경제적’이니 하는 건 또 다르단다.”

“다를 게 뭐 있소? 경제는 돈 모으는 거고, 경제학이면 돈 모으는 학문이지요.”

“아니란다. 혹시 이재학이라면 그런 말도 될 수 있겠지만, 경제학은 그런 게 아니란다.”

“아—니, 그렇다면 아저씨 대학교 잘못 다녔소. 경제 못 하는 경제학 공부를 오 년이나 했으니 그게 뭐란 말이오? 내가 아저씨가 돈 못 모은 이유를 몰랐는데, 이제 보니 공부를 잘못해서 그런 거였군요!”

“공부를 잘못했다? 허허, 그랬을는지도 모르겠다. 옳다, 네 말이 옳아!”

- 채만식, 「치숙」 -

가천대학교/국민대학교 대비 약술형 예상문제 (국어)

06. <보기>는 채만식의 「치숙」을 바탕으로 서술한 내용이다. <보기>의 ㉠~㉡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위 소설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작중 화자는 조선 잡지의 질적 수준과 언어 표현 방식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낸다. 그는 특히 조선 잡지들이 한문과 언문을 섞어 쓴 까다로운 문장 구조 때문에 ㉠ 라고 말하며, 그런 글은 뜻을 몰라 읽을 수 없다고 강조한다. 반면, 일본 잡지는 가나가 달려 있고 내용도 알기 쉬워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기쿠지캉의 소설은 ㉡ 라고 극찬한다. 화자는 아저씨가 쓴 글을 우연히 발견하고는 그 내용이 궁금해 책장을 넘겨 보지만, 글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당황한다. 이후 그는 “경제는 돈을 모으는 것이고, 사회주의는 부자의 돈을 빼앗는 것”이라는 자신의 관념에 기대어, 아저씨의 글을 비판하고 조롱한다. 결국 그는 아저씨가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배운 것을 두고 ㉢ 라고 말하며, 자신의 통속적 기준에 따라 아저씨의 학문을 깎아내린다.

가천대학교/국민대학교 대비 약술형 예상문제 (국어)

정답

01

- ① 본질
- ② 책임
- ③ 비본래적 실존
- ④ 실존적
- ⑤ 공동체와의 관계

02

- ① 이해
- ② 관점

03

- ① 사고력이나 사회성
- ② 논리적 오류
- ③ (구체적인) 원인
- ④ 사회적
- ⑤ 설득력

04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 서다

05

- ① 한 발 재껴 디딜 곳조차 없다
- ②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캔가 보다

06

- ① 읽는 건 여간 폐롭지가 않소
- ② 얼마나 아기자기하고 달콤한지
- ③ 경제 못하는 경제학 공부를 오년이나 (했으니)